

전남마저 구제역 백신 접종

정부, 살처분 최소화 전격 결정... AI는 속수무책 확산

77년 '정형 축산 지역'의 위상이 무너졌다. 정부가 전남을 포함한 전국에 걸쳐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구제역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평행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했다.

맹 장관은 브리핑에서 "백신 예방접종을 전남을 비롯, 전북, 경남 등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선제적 백신 접종을 통해 구제역 확산을 막고 살처분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했다.

맹 장관은 이어 "예방 백신은 이미 확보한 1100만 마리 분 외에 추가량을 신속히 확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갑작스런 정부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70년 넘도록 정형 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남도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내린 결정이어서 유감스럽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한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속수무책으로 확산하고 있다. 영암·나주에 이어 화순·장흥에서도 고병원성으로 변이되기 쉬운 'H5'형 AI가 검출되는가 하면, 오리뿐만 아니라 닭에서도 AI양성 반응이 나와 지역 양계농가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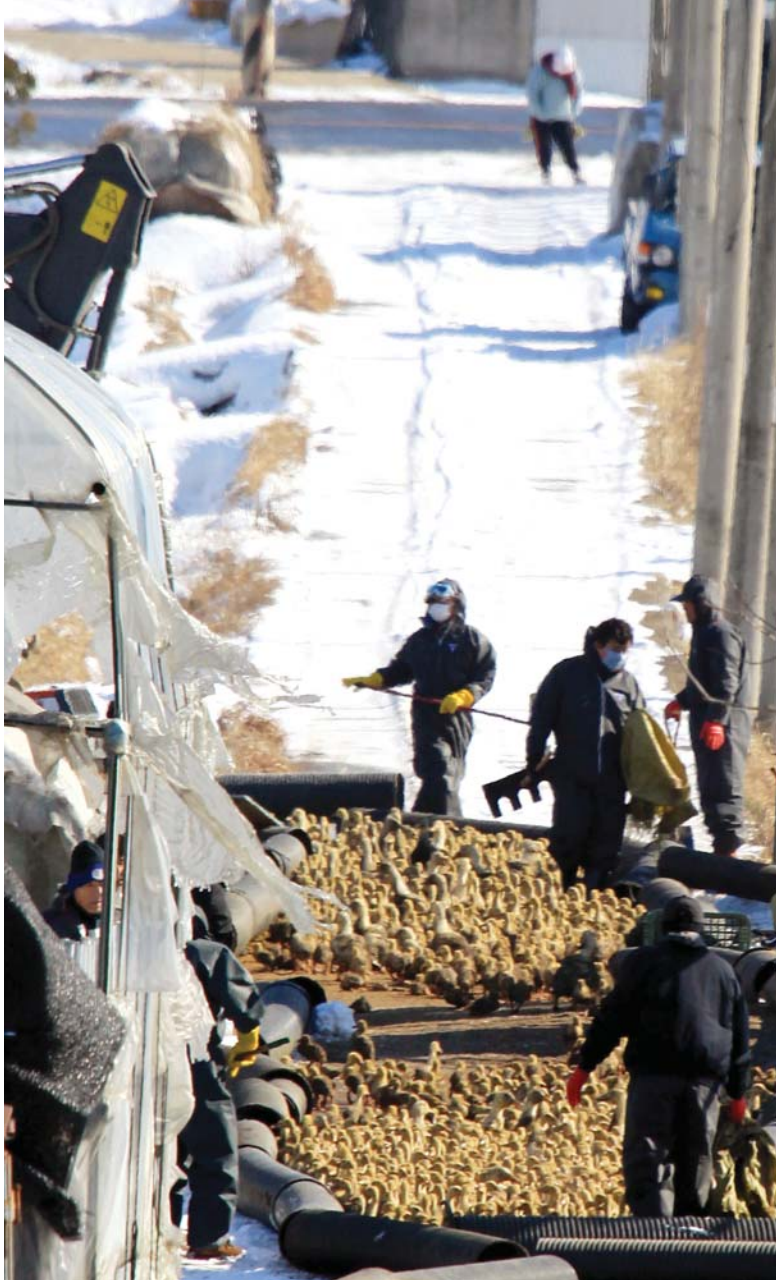
전남도는 12일 AI 의심신고가 들어왔던 나주시 산포면 오리 농가(2곳)와 문평면 닭 농가(1곳), 화순군 청풍면·장흥군 장평면·영암군 군서면 오리 농가 3곳 등 6개 농장에서 'H5'형 AI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금껏 오리에서만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으나 이번에는 닭 사육농가에서도 처음으로 'H5'형 AI가 확인돼 도내 양계농가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또 화순과 장흥 오리 농가에서도 AI 양성 반응이 나와 확산세가 거세지는 양상이다.

광주시도 나주시 남평면 농가도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반경 3km 이내인 남구 칠석동·구소동 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만8000마리를 매몰처분했다.

전남도는 AI 위기 대응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내 씨오리 농장 37곳에 대해 긴급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재래시장에서는 닭과 오리들을 판매하지 말도록 했다. 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나주 한 오리농가에서 의심 신고 하루 전 나주 가공업체에 오리를 출하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 내 오리도축장을 잠정 폐쇄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예방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56억원을 긴급 확보했다. /김진우기자 dok2000@



광주시 방역 당국이 12일 광주 남구 칠석동·구소동 일대 2개 오리농가에서 사육중인 오리 3만8000여마리에 대한 살처분·매몰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살처분은 이들 지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검출된 나주시 남평면 오리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에 포함돼 예방적 차원에서 이뤄졌다. /김진우기자 jeans@kwangju.co.kr

멀쩡한 광주시교육청 청사
혈세 500억 들여 신축 추진

옛 도교육청부지에...문화벨트 조성 발목 우려도

광주시교육청이 정부의 공공기관 예산절감 방침에도 뚜렷한 명분없이 500억대의 사업비를 들여 옛 전남도 교육청 부지로 신축·이전을 추진,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12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현 시 교육청 청사에 2013년 말 준공 목표로 복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현 화정동 청사는 부지 1만 400여㎡에 전체면적 9540㎡로, 지난 1988년 말 준공됐다.

시 교육청은 이전 배경으로 청사 주변에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선수촌이 건립돼 교통혼잡 우려, 시설 노후, 부지훼손 등을 꼽고 있으나, 궁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시 교육청 내부에서도 현 청사에 노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것도 아니며 부지가 협소하지도 않는데, 굳이 이전을 검토하는 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 신축예산(544억원) 확보 방안으로 옛 광주여고와 교육과학연구원 매각(280억원), 자체 예산(114억원), 교과부 특별교부금(150억원)을 들고 있다. 확보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청사신축 등에 부정적인 데다 수년 전부터 매각을 추진해온 옛 교육과학연구원 등은 이미 3차레나 유찰됐고, 옛 광주여고 부지도 현재로선 매각이나 활용방안이 없다. 이전 후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도 없다.

반면 시교육청은 지난해 살려서이고와 송학초교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학생들의 안전문제 등으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신축에 총력을 쏟지 않고 있다.

청사 이전은 장미전 전남도교육감이 지난해말 장취구 시교육감에게 옛 도 교육청 부지 활용을 제안, 전격 추진돼 지난 11일 기본계획안이 확정됐다.

문제의 부지는 광주시가 문화중심 도시사업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미디어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어서 시교육청 이전을 강행할 경우 문화중심도시 건설 사업의 발목을 잡게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이전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이전과 관련한 각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정동기 자진사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12일 자진사퇴했다. <관련기사 3·4면>

정 후보자는 이날 통의동 금융연수원 별관 후보자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감사원장 후보자 지위에서 사퇴하기로 결정했다"며 "부족한 사명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각종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 한사람으로 인해 대통령께 누를 끼치고 향후 조래될 국정의 혼란을 감안하니 차마 이를 고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사퇴 배경을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내정 이후 전관예우 및 재산형성 과정, 민간인 사찰보고 논란 등이 제기되면서 사퇴 압력이 제기돼 왔다.

지난 2000년 감사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기도 전에 사퇴한 것은 처음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완도~제주 30분 주파 위그선 뜬다

완도~제주간을 30분에 주파하는 위그선(WIG·Wing In Ground Craft)이 올해 하반기부터 운항될 전망이다.



"바다 위의 KTX"로 불리는 위그선은 선박에 항공기의 장점을 적용해 바다위 공기쿠션 위에 떠가는 안전하고 경제적인 초고속 선박이다.

완도군은 지난 6일 군청 상황실에서 김종식 군수와 최석경 한일고속 대표이사, 정관영 부사장, 사회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완도~제주항로 활성화를 위한 투자개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한일고속측은 내년 대형 위그선이 상용화될 경우 위그선 구입비 130억원과 계류점안장 조성 등 모두 150여억원을 투입해 완도~제주간 위그선 정기운항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 위그선은 현재 대전에 위

치한 원셀테크놀로지(주)에서 연구·개발중이며 수면위 1~5m 뜬 상태에서 속력 100~150여 명 또는 화물 16.3t을 싣고 116노트(시속 215km)로 운항, 완도~제주간을 30분대에 주파할 수 있다. 요금은 3만5000원~4만원 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위그선은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동작시에는 언제든지 바다에 착수할 수 있고, 상하운동 및 롤링(rolling)이 없이 안정적이다.

김종식 완도군수는 "완도~제주간 위그선이 본격 운항되면 국내 관광·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정은진기자 jejung@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변호사 별세

한국 인권 운동의 대부인 이돈명 변호사가 11일 오후 7시20분께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향년 89세. <관련기사 14면>

이 변호사는 1922년 나주에서 태어나 조선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3회)에 합격해 판사로 근무하다 196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1974년 유신독재의 대표적인 조작사건인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의 변론을 맡으며 인권변호사의 길에 들어선 뒤, 줄곧 민주화 인사의 법적 보루이자 동반자로 살아왔다.

고인은 또 1988년 9월6일부터



인권변호사 1세대로 불리는 고인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큰 역할을 했다. /최희정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iddink Hotel (히딩크호텔) featuring a package deal for 70,000 won including breakfast and spa services.

Advertisement for Kwangju Shin University (광신대학교) celebrating its 57th anniversary and listing admission information.

Large advertisement for a winter trip to Jeju Island, featuring a package price of 799,000 won and listing activities like snow play and sightseeing.